

강진군-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협약체결

전남권 최초...강진읍시장 등 지역상권과 경제 활성화 백종원과 함께 하는 먹거리타운 시작으로 3단계 진행

강진군이 지역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남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26일 오전 충남 예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백종원 (주)더본코리아 대표와 상생발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가운데 획기적인 새로운 모델을 도입, 지역상권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한다.

이날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방시대 발전을 모색한다.

군은 전국의 모든 지역이 고민하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과 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주)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손을 잡았다.

(주)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는 충남 예산군과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예산시장을 올해 7월까지 누적방문객 137만명을 돌파하며 사라질뻔한 작은 시장을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장으로 변화시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예산시장을 시작으로 다른 관광지까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관광객만큼 일자리도 늘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주고 있다. 강진군은 이에 주목했다.

군은 지난 3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예산시장 벤치마킹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

다. 전국 50여개의 지자체가 백종원과 함께 하기 위해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는 가운데 강진군 군수가 직접 참여해 백종원 대표에게 건의했고, 지속적인 제안으로 백종원과 함께 '강진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강진 분원을 유치해 창업 등에 필요한 컨설팅, 시설 지원 등 모든 분야를 뒤에서 밀어주는 행정지원으로 지역회복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려는 계획이다.

군은 강진읍시장과 오감통 먹거리타운부터 시작해 시장 주변 상가로 확대하고 이후 강진읍 상권 전체를 활성화하는 3단계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경제성 높은 문화콘텐츠에 집중할 강진읍내 오감통은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 쉬거리가 있는 오감만족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져 사람들이 불러들이는 데 최적이다.

군은 강진읍시장 주변의 오감통 공연장, 음악창작소를 연결해 음악, 문화예술, 레트로 감성이 함께하는 핫플레이스를 만든다. 강진에서 나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개발해 '맛과 관광'이라는 방향성을 뚜렷이 한다.

강진군은 전국적으로 성공한 강진만의 특별한 관광마케팅으로 미항 마량에서 열리는 마



강진원 강진군수와 백종원 (주)더본코리아 대표가 26일 오전 충남 예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약식을 체결했다.

량농도수산시장, 병영면 병영시장의 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 불금불과, 스트레스를 풀고 가라는 의미가 담긴 농가 민박 푸소 등의 체험 프로젝트들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지역문화 콘텐츠들로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다.

더불어 맛의 고향 1번지 강진은 전남 서남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강진맛집 투어 코스에 담을 만큼 그 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강진한정식, 돼지불고기, 회춘탕 등 풍부한 음식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멜촌맥주와 하멜촌커피를 개발해

독자적인 지역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함께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은 전국의 미식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이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강진분원을 유치하고 단계별로 강진읍 시장, 오감통 먹거리타운, 주변상가 활성화 전략을 완벽하게 추진해 강진을 전국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이를 통해 음식을 연계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인구정책 한눈에' 홍보책자 제작...69개 정책

장흥군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장흥살기 지원시책 생생정보' 책자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책자는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전입지원 ▲결혼지원 ▲임신출산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귀농어촌 ▲문화관광 등 9개 분야 69개의 인구정책 내용을 담았다.

올해 신규 시책인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이사비용·웨딩포토비 지원', '다둥이 가정 병원비 지원' 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책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읍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신규 전입자 뿐만 아니라 전입을 고려하는 외국인도 주민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홍보책자는 장흥군 홈페이지 '인구정책'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달라지는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소통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경기도 용인시 개최



진도군이 최근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에서 '추석맞이 진도 우수 농수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진도군과 사)한국수산업경영인진도연합회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에서 직접 생산·가공한 진도 청정 전복, 미역, 다시마, 꽃게, 진도홍주, 울금 등 70여 가지의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특히 이번 직거래장터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시장 판매가격보다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는 주머니 부담을 덜고, 소비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에게는 큰 힘이 되는 '상생의 장'으로 거듭났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장터 행사가 어려움에 처한 진도 농어민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도군의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 확대와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기자

완도군,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공모 선정 22억 확보

완도군이 산림청 주관 「2024년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기후 대응 기금 포함 총 사업비 22억 원을 확보해 군외면 원동 교차로 일원(2.2ha)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게 됐다.

사업 대상지는 기후 대응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한 곳, 방문객이 많은 곳, 조성 후 지역 자원과 조화를 이뤄 특색 있는 경관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곳 등 세 가지 목표를 세워 모색했고, 그 결과 원동 교차로로 결정됐다.

군은 청정바다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 이후 전남도에 사업 당위성을 피력하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기재부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후 대응 도시 숲'은 올해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에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자생 난대수종이면서 탄소 흡수율과 산소 발생량이 높은 완도호랑가시나무, 불가시나무, 황칠나무, 동백나무 등을 중점 식재해 완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군, 땅끝 바다로 뻗은 '스카이워크' 개통 길이 41m 높이 18m 직선형...탁트인 경관·스릴 만점



해남군 땅끝마을에 41m 길이의 스카이워크가 개통됐다.

해남군은 땅끝마을에서 시작하는 해안처음길의 중간 지점에 땅끝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고, 23일부터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고 25일 밝혔다.

스카이워크는 육지에서 바다쪽으로 길이 41m, 높이 18m의 직선형으로 뻗은 형태로, 전 구간 강화유리를 사용해 땅끝바다를 직접 걸어보는 듯한 스티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스카이워크의 끝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서남해 바다의 탁트인 전망과 땅끝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땅끝마을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포인트가 되고 있다.

땅끝 일출과 일몰, 여객선, 어선 등과 어우러진 보석같은 다도해의 섬들을 조금더 가깝게 만나고, 땅끝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신비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새롭게 선보인 스카이워크는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사업의 일부로 조성됐다.

땅끝 해안처음길은 땅끝마을의 해안 자연경관을 활용한 스카이워크 조성과 국토대장정을 시작하고 끝내는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국도 77호선 노변 보행로 1.22km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스카이워크 진입로는 보행약자를 위해 경사도를 낮춘 보행데크 118m를 조성해 휠체어 등도 진입이 가능해 누구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시설로 조성됐다.

스카이워크의 개장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우천시나 강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출입이 통제될 수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